

행동자치동향 >>>>

최길수 / 대전발전연구원

대전시와 인근 8개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본격추진

최근 대전시와 인접 8개시·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들어갔다. 대전시장과 충남 계룡시를 비롯한 인접 8개 자치단체 시장·군수는 12월 4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'G9(대전시+8개시군) 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구성된 '공동발전 실무협의회'가 두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통 협력과제 6건과 개별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논의된 공통 협력과제는 ▲지역축제·휴양시설 상호 홍보 및 지원시스템 구축 ▲지역 농·특산물 상호 판로지원 ▲시·군의 날 운영 ▲대형산불 등 재난발생시 상호 지원 등 모두 28개 사업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한편,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달 G9 14개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G9 간 협력은 권역 내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며, 협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로는 “도로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확충 공동추

진” 사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.

또한, 이날 회의에서는 G9을 대표할 상징적인 아이탬을 개발해 이를 중심으로 G9의 정체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, 그 방안으로서 대청호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.